

학교도서관의 당면과제 30년

김 효 정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目次

- I. 정보사회와 학교도서관
- II. 학교도서관의 본질
- III. 당면과제 30년

I. 정보사회와 학교도서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선진 공업국의 산업주의 정신은 인류사회에 많은 혜택과 함께 여러 모순과 갈등을 가져왔다. 資源의 有限, 환경파괴, 인간생존의 위기를 몰아 오고 있는 것이다. 이 모순과 갈등의 해결은 새로운 정보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다.

인간은 '물질' 자원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다시 '정보' 자원으로 바뀌어 왔다. 그 정보자원의 생성, 가공, 전달, 이용 및 축적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활동의 총체를 가리켜 정보활동이라 하고 이 정보활동에 비중을 두고 이를 증대시키는 사회가 정보사회이다.

이 정보사회는 지식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은 가속화된다. 지식·정보의 정리, 저장,

재생 및 활용은 다원화, 다양화, 고속화 되고 전산화 되어 지구촌화 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은 이 지식 정보를 창출, 처리, 활용하는 능력에 의존하고 이 능력은 상상, 생각, 판단, 조직, 종합, 창조로 표현되는 지적능력 곧 고등정신력(High order intellectual thinking ability)에 의하여 좌우된다.¹⁾ 수렴적 사고인 단순한 지적 작용은 전산화로 처리되고 발산적 사고인 상상, 조직, 창조는 인간다운 고등 정신력으로 인간만이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의식발달이 강조되고 따라서 새로운 인간능력, 고등정신력을 요구한다. 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서 벗어나 정보중심의 생산양식을 창조하는 초(超)산업사회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사회적, 교육적, 정보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도전을 일으키고 있다.

● 사회적 도전 : 정보사회에서 가족구조 변화는 어린시절 人的환경이고 기초교육의 場인 가정교육을 상실시키고, 어린이를 가정밖 환경으로 몰아내고 있다. 사회구조는 산업경제구조에서 봉사경제구조로 변천²⁾되고 특히 유아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1) 김효정, 어린이도서관 봉사활동, 중대논문집 35집, 인문, 서울, 중앙대학교, 1992. p.5

2) Rita Cruise O'Brien.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George Gerbener and M. Siefert(eds) World Communication. New York, Lonyman, 1986. p.9

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본질의 변화는 중산층을 분해하고 생산활동에 의한 수입에 시간을 보내듯이 여가활동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 한다. 사회구조와 가족구조의 이 변화는 학교가 다양한 배경의 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에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산업경제구조에서 봉사경제구조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직업은 봉사정보 영역에서 상당량의 데이터 처리를 요구한다.

● 교육적 도전 : 학교와 학생간의 강력한 상호관계는 사회변천에 따라 가족구조와 학생의 미래 성공사이에서 주요한 요인이다. 한 학생의 기초적 기본기술(basic skill)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학교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 기본기술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적성으로 표현되어 왔다. 학생의 기초적 기본기술에 대한 노력은 3학년 수준의 독서와 수학을 정복하게 힘을 기울인다.³⁾ 그러나 성공할 수 없는 다른 학생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학교, 직장, 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능력, 고등정신력까지 배우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Goodlad에 의하면⁴⁾ 가르치는 것은 '강의'로, 아직 교실 앞에 혼자 서서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교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네 학교는 지적으로 교사와 학생 양쪽을 다 풀이 죽게 만든다. 이어지는 재교육과 개발 프로그램에서 학교는 현재 구조가 오직 순간 개선이나 현상 유지만을 수행하게 한다. 정보사회는 교육내용 전달의 전체적인 새로운 배달시스템 개발을 필요로 한다. 즉 학교도서관을 기초로 한 교수·학습에 학교교육의 전체적 기본을 두어야 한다.

정보사회 학교는 개인 수준에서 교수·학습과 그 조정을 위한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생각하기와 창조성은 가치있는 것이고 교수·학습은 학생이 응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목적과 더불어 전달/응용/창조로 이어지는, 생산성을 가져오는 학습과정에 기초한다. 다시 말하여 학교는 학습자 중심으로 주제영역을 배우기 보다 오히려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 중심에 더하여 과정 중심이고 학생의 이미지, 내적 동기유발 그리고 개인적 수행이나 인격적 생산성 내지는 창조적 적응력에 가치를 둔다.

최근 학교도서관은 수동적 봉사에서 능동적 봉사, 자리 이용에서 자료이용으로, 가르치기 위주에서 배우고 가르치기로, 자료 원조에서 인간적 원조까지로, 즉 학교도서관 매체 프로그램(SLMP)으로 변이되어 있다. 여기서 지식 정보의 대량증가와 학생요구 변화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 더 적극적인 학교도서관매체전문가(사서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전담하게 한다. 사서교사는 분명히 학교교육에서 정보전문가, 교수 그리고 교수·학습의 협의자로서,⁵⁾ 공식, 비공식 학습에 요구되는 핵심적인 정보와 생각(idea)의 기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정보에의 도전 : 정보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봉사경제구조는 창조활동의 확대와 기술적 향상으로 정보과다를 초래하였고 3년에 배가되는 정보량이 세계 곳곳에 범람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매분마다 이 정보폭발 속에서 선택과 의사결정을 강요당하면서 제한없는 기술 개발의 구조속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대개 학교교육에서 노출된 정보의 80%만 포함한 교과서만으로 학생이 모든 지식을 배우거나 유지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서 풍부한 자료원과 다양한 정보원은 의사결정에 핵심 역할을 한다. 학생이 수용하는 정보의 다양한 형태는 눈에 보이는 배열순만이 아니고 그 자체의 조직을 내포하고 있다.

3) G.W. Chltp. *Learning and Information*.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1988. p.6

4) J.I. Goodlad. *A Place called school* : Prospects for the Future, N.Y. McGraw-Hill, 1984. p.105~123

5) D. Heuston. Presentation made at First Annual Technology Conference of the Co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New York. Albany. 1984.

학생이 직면한 도전은 이 정보 흐름에서 정보 자체의 조직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 분류, 저장, 관리 및 처리, 검색, 활용하는 수용력을 확고하게 하여 낱말이 데이터와 정보를 유용한 지식과 지혜로 전환 시키는 것에 있다.⁶⁾ 그러므로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수용력은 과거와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 기술적 도전 : TV와 라디오는 현대 가정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컴퓨터 기술은 일상생활의 일부이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정보를 저장, 조직, 검색하는 능력은 평범한 것이 될 것이고 그 가격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을 학교가 빠르게 받아 들이는데 소홀히 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성행하고 있는 컴퓨터 비디오, 비디오 디스크, CD ROM 기술 등을 빠르게 교수·학습과 학교관리에 이용하는데 반하여 가정과 기업에서 이용하는 상황이 보다 앞서고 있다.

기술은 항상 변하고 추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 생애에 충격을 준다. 기술의 급속한 성장은 역시 정보사회를 재촉하였고 상당량 정보의 직접 검색과 잠재적 저장을 학생이 배우도록 우리의 기대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은 정보발생 즉시 인지하여 보다 많은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를 쓰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도전 : 정보사회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지도조언 없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직접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이 개인은 지식, 정보를 수집, 검색,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며 창조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봉사경제종사자는 업무 현장에서 완전한 인간관계와 무관하지 않아서 사람다운 인간능력을 요구한다.

미래 노동시장은 3D 현상으로 고임금 그룹과 저

임금 그룹으로 피곤한 사회가 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 컴퓨터 관계, 의료기계와 공급, 신소재 등은 신종 직업이나 2000년대 신 직업의 80%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⁷⁾ 대학교육도 항상 수준있는 직업과 고용에의 성공과 만족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봉사경제 구조에서 교육과 기업은 모든 사항에 대비할 정보기본기술 (information skill)과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을 완전 정복하게 수준있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감수해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 관리, 처리하여 수용하는 개인능력의 개발과 그 숙련을 요구한다.

이상의 도전을 감당해야 하는 교육은 21세기 정보사회에 필요한 정보기본기술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새로운 수단, 정보의 새로운 배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학교도서관의 개발과 변혁은 정보사회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II. 학교도서관의 본질

교육개혁의 궁극목표는 적절한 시설, 교재자료 그리고 의욕있는 교사를 확보한 교육기관에서 인간 잠재력을 알맞게 신장시키는 교육생태계 회복에 있다. 교육개혁은 새로운 교육제도, 내용, 방법을 활용하여 획기적인 교육개발을 보장하려는 교육조직의 의도적인 행위이다.

교육개혁에서 SLMP의 적용 가능성은 이미 교육변화의 건설적 수단으로 개혁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⁸⁾ 일찍부터 교육개혁에 활용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교육목적 변천과 학교도서관 기준변화를 보면 공교육 형성 이후 1981년 The seven cardinal principle로 교육목표를 明文化하고 10~

6) G.W. Cultip op. cit., p.8

7) E. Cooper. Presentation made at the south easter regional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meeting of behalf of the college board, W. Va., Charleston, 1987.

8) 김효정, 교육개혁을 위한 SLMP의 적용가능성, 중대논문집, 27집, 서울, 중앙대학교, 1983.

15년마다 연구 개발을 거듭하였다. 이 사회 변천에 따라 20여년전 부터 21세기 교육목표에 대비하여 오고 있다. 한편 학교교육현장에서 영어교재지원으로 시작된 학교도서관 기준은 1918년 The Certain

Standard에서 부터 10~15년 마다 개정하여, 교육 개혁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매체프로그램 기준으로 변이⁹⁾되어 왔다. 그 모습은 다음 표 I에서 살펴 수 있다.

표 I 미국 교육목표와 학교도서관 기준 및 관계법의 변천

교육목표	관계법(연방정부)	학교도서관기준
1918 The Seven Cardinal Principlc. 기본교육목표		1918 The Certain Standard secondary School Library.
1938 The Purpose of Educational in American Demacracy. 민주시민 양성		1925 The Standard of Elementary School Library.
1945 General Education in the Free Society. 교육기회균등	1956 도서관봉사건설법 LSCA	1945 Standard Libraries for today and tomorrow.
1958 The Pursuit of Excellence.	1958 국가방어교육법 NDEA	1960 School Libraries Standards.
1960 Goals for American. 질적교육	1964 도서관봉사재건법 LSRA	1969 Standards for School Media.
1971 Common Goals of Michigan Education.	1965 초등교육법 ESEA	
1973 18th Goals Educaution. 우수교육	1965 고등교육법 HEA	1975 Media Programs : District and School.
1979 Pennsylvania's Goals of Quality Education.	1981 교육통합 개선법 ECIA	
21C Cardinal Principles for Edul' Change.	1984 '국가위기'보고서	1988 Information Power.

SLMP은 단순한 읽을 거리와 교재지원의 독서자료보관소에서 학습자료센터로, 학교교육에서 교육, 자료, 정보, 오락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시설인 도서관으로, 다시 학습·교수 매체센터로 변천되고 인지되어 왔다. 정보사회에서 전통적 학교도서관 개념이 확대되어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교수 매체의 저장과 활용 및 창조에 중핵적 역할, 교육개혁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SLMP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교육개혁의 초점은 교육현장에서 '무엇'보다 '어떻게' 가르치나에, '가르치기'보다 '배우고 가르치기'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일반 사항에서 가깝게 공부하는 '기회'는 참여를 통한 민족, 주제에 관여하는 사실에 깊이 있는 이해, 인간관계의 선명과 세련을 가져오는 '모두(every)'는 '어느(any)'보다 우선하고 세련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일치감에 있다. '교육내용'은 값있는 목적을 위하여 학습자가 환경을 조정하고 그 환경에 기여하도록 학습자를 돕는 계획된 경험의 실체들이고 '교수, 학습'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원활유 또는 촉매로써 봉사하거나 중개하는 전략이다.¹⁰⁾ 결국 미래에 대비하여 미래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는 상승물에

9) R.A. Davies. *SLMP*. New York, Bowker, 1979. p.13~24

10) *ibid*, p.24~26

따라 계속하는 행동을 인내하고 배우는 방법 배우기, 생각하기, 고등정신력인 인간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과 관계있는 교육법과 국가법인, 1958년 국가방어법(NDEA), 1956년 도서관 봉사건설법(LSCA), 1964년 도서관 봉사재단법(LRCA), 1965년 초등교육법(ESEA), 1965년 고등교육법(HEA), 1981년 교육통합 개선법 등의 제정은 학교도서관법 없이도 SLMP를 지원하였고, 1984년 ‘국가위기는 “좋은 학교는 좋은 도서관을 요구한다”는 실체를 보고 하였다. 이들은 교육개혁과 SLMP의 관계를 선명하게 밝히는 논거이다.

그러므로 SLMP는 정보사회와 학교교육 및 배우고 가르치는 사회 어느 곳에서나 성공적으로 경쟁하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 경험, 영감을 다양한 형태로 보관할 뿐만 아니라 ① 풍부한 지식, 정보와 생각, 경험의 자료원인 환경으로써 학생이 생각을 얻기 위한 분석적 태도의 개발 ② 다른 견해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③ 평생동안 긍정적 관계에서 정보와 생각을 취급하는 표현해 내는 수단 등을 흥미롭게 개발시켜 자아확립을 형성하게 하는 개혁적인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미래지향적 통합 교육 프로그램¹¹⁾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SLMP의 근본 목적은 학생과 교사를 정보와 생각에의 유용한 이용자로 보장하는 Program 개발에 있다. SLMP진행의 성패는 교육부서를 설득하고 행정당국의 승인을 얻어 사서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데 따른다.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환경, 정보를 주제로 끈기있게 도전하는 능력있는 인간개발은 SLMP의 본질이다. SLMP은 질적 우수교육에서 우수한 교수·학습의 원동력이고 질적 우수교육에 의한 자기

실현, 현실화의 원동력이다.¹²⁾ 그러므로 SLMP는 지식, 정보의 사회생태계를 형성하고, 자연과 인간을 조화있게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의 창조적 적응력을 발휘하게 하는 교육 변화의 건설적 수단으로 개혁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교육개혁에 활용되고 있다.

III. 당면 과제 30년

우리나라 교육은 정부수립 이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양과 질, 평준화와 수월성의 추구, 교양과 전문, 인문과 기술 등이 아직은 미분화 되어 있고 공공기관에서 통제와 구성원간의 자율에 의한 조화,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데 있어 아직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결과 우리 교육은 本末의 전도, 권위의 상실과 동요, 교육과정의 부적합, 불균형 문제의 부각, 학생지도에 난점, 교육재정의 곤란이 노출되는 총체적 위기를 맞이한다.¹³⁾ 더욱 학교도서관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부는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래 시대적, 학문적, 그리고 개인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교육법(1987. 6. 30)에 의거하여 추상적, 요강적, 일반적, 거시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국가 차원의 기준이고 지침일 뿐이다. 1992년 11월 고시된 6차 교육과정은¹⁴⁾ 과거 “주어진 교육과정”과 “찾지 않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교육과정”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이라면 적절한 교육설계, 교육방법, 교육환경과 자료 등의 적당한 교육여건, 곧 SLMP를 확보해야 그 효과를 거둘 것이다.

11) 김효정, 정보사회에 있어서 사서교사의 위상, 중대논문집 33집 인문, 서울, 중앙대학교, 1990, p.61

12) R.A. Davies. op. cit., p.13~26

13) 김종철, 교육의 위기, 교육난국의 해부, 서울, 나남, 1991, p.358~362

14) 교육부, 교육과정연수자료 4, 93-6, 서울, 1993, p.1~14

“만들어가는”, “찾아가는” 그리고 “조정하는” 교육과정을 법규화 하였으나 학교도서관은 언급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들이 당면한 과제는 30년 전 학교도서관(1962년)과 같을 수 밖에 없다.

1962년 4월 2일 개최한 전국 도서관대회¹⁵⁾에서 발표된 학교도서관의 당면 과제와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거의 같다. 1960년대의 과제는 학교도서관에 관계하는 행정체계 확립, 사서교사 양성, 도서관 이용 교육이었다. 1993년 당면 과제중 우선 순위에 따른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관계 법규의 改定

현재 학교도서관 관계법은 모호하다.

도서관 진흥법(1991.3.8 법률 4352호) 제2조 5항에 학교도서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2년반이 지나도록 후속조치 없는 법적인 미아 상태이다. 1963년 도서관법에는 학교도서관 설치의 의무규정을 정하여 1993년 현재보다 우선한듯하나 도서관법 시행령, 학교시설 기준령으로 내려가며 학교규모에 따른 도서관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30학급의 학교가 6학급의 학교에 알맞는 규모로 설치하여도 문책할 수 없었다. 설치기간도 도서관법 제정 후 1965년 3월에 「도서관법 시행령」이, 1967년 10월에 「학교시설 설치 기준령」, 그리고 1968년 10월에 「학교 년도별 시설 보충 계획」이 공포되었다. 국가의 지가 5년만에 비로서 행정조치를 취하였었다. 그러나 도서관진흥법은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법적 근거와 같이 교육부나 문화체육부 어디서나 행정의 부채를 노출하고 있다.

2. 사서교사(임용과 승진)의 職制確立

학교도서관 관계법의 모호는 사서교사의 T/O 배정, 임용과, 승진, 법적 지위에 관하여 法治行政의 原理를 거부하게 한다. 특히 사서교사의 자격 기준은 교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나 승진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교사로 격하되어 있고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사서교사의 구분이 없는 사항이다. 더욱 도서관진흥법의 통과는 학교행정가의 민첩성이 현재 사서교사를 곤궁하게 하고, 사서교사 非誘引體制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독서교육(information skill로서)의 強化

정보사회는 information skill과 information technology를 필수능력으로 요구한다. 학교도서관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관리, 처리하는 수용력을 학습자에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독서는 단순한 읽을거리를 처리하는 과정이기 보다 정보사회의 기초적 커뮤니케이션 기술로써 information power의 핵심이다. 독서교육은 인성개발, 고등한 정신적 개발의 중핵으로 人間 資源의 원천이고 도서관 이용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정보사회의 기본기술이다.

15) 1962년 전국도서관대회 회의록, 도협월보, vol.3.no.4. 1962 : 7, 8. p.206~207